



2023. 1. 13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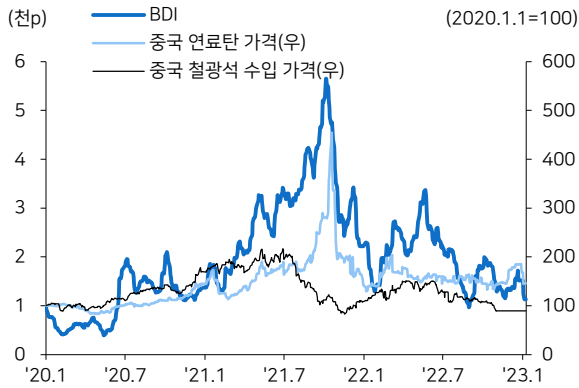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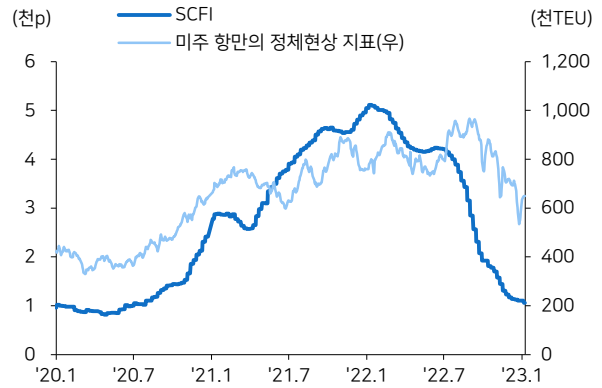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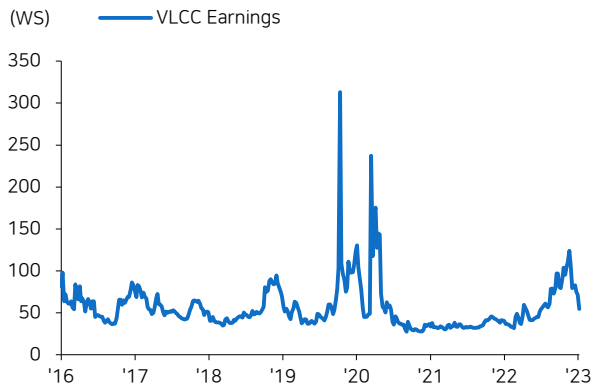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976.0p(-6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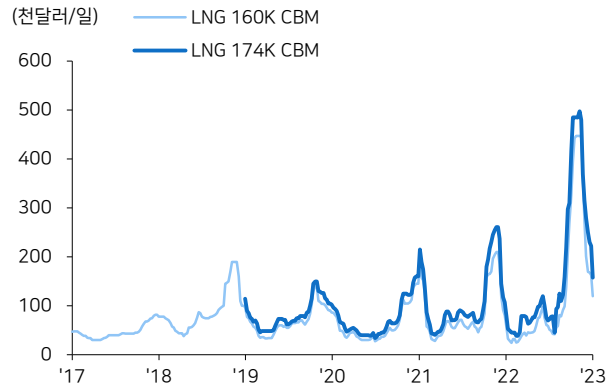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061.1p(-46.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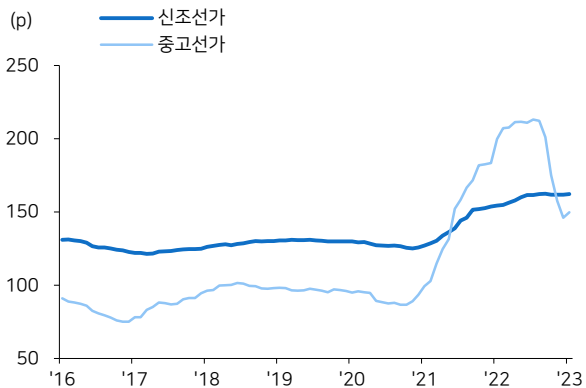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54.7p(-17.0p WoW)



LNG Spot 운임 120.0p(-43.0p WoW)
157.5p(-65.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2.2p(+0.3p WoW)
149.8p(+3.8p WoW)



항공시장 지표 257.3p(+3.9p DoD)
100.7p(+0.1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트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및 코멘트

Tsakos, 현대중 '컨'선 → 탱커

컨테이너선 대신 탱커 시장이 떠오르자 컨테이너선 발주를 탱커로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도됨. 그리스 Tsakos Group은 현대중공업에 발주했던 2,800TEU급 피더 컨테이너선 4척을 158,000DWT급 Suezmax 탱커 1+1척으로 변경했다고 알려짐. 확정분 1척의 납기는 2025년 상반기이며 2척의 선가는 1.7억달러로 알려짐. 기존 발주했던 피더 컨테이너선 4척의 선가는 척당 4,700만달러였다고 언급됨. (선박뉴스)

현대중공업, 임금 소송 10년여만에 끝...6,300억원대 지급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10년여만에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고 보도됨. 현대중공업은 전·현직 노동자 3만여명에 6,300억원대의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하게 됨. 회사측은 2021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 부담액을 총당금으로 마련해왔기 때문에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됨. (국민일보)

김경배 HMM 대표 "정체성 살릴 인수자 원한다"

김경배 HMM 대표는 해운사의 정체성을 살려줄 수 있는 인수 후보자가 새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보도됨. 10조원이 넘는 현금성자산은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짐. 해운업계 불황 전망에도 비용절감 등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언급했다고 알려짐. (더벨)

Freeport LNG may extend Texas plant restart to February- sources

미국 Freeport LNG가 규제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며 2월까지 재가동 시점을 연기한다고 보도됨. 미국 LNG 수출량의 20%를 담당하기에 해당 터미널의 가동 재개가 글로벌 LNG 공급에 중요하다고 언급됨. 공식적 발표는 없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빨라도 2월말에 재개될 것으로 언급됨. (Reuters)

러시아 제재, 원유로 안 되니 정유로...미·EU, 수출 제재 논의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경유(디젤) 같은 정유 제품의 수출에 대해서도 2월초부터 '가격 상한제 제재'를 가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됨. 미 재무부 고위 관료가 이번 주 유럽을 방문해 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정유 제품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려짐. 한편, 유럽연합은 2월초부터 러시아산 정유 제품 수입 금지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짐. (한겨레)

Chinese oil demand indicators pointing up but VLCCs still languish

중국 원유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VLCC 운임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됨. 미국 에너지청(EIA)은 중국 수요 증가에 따라 전세계 수요를 2023년 1.00억BPD, 2024년 1.02억BPD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언급함. 중국의 수입 한도도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고 알려짐. 그러나 VLCC 용선료는 13개 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수요일(11일) 13,800달러/일 아래를 기록함. 물동량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지만, suezmax 시장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함. (Tradewinds)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